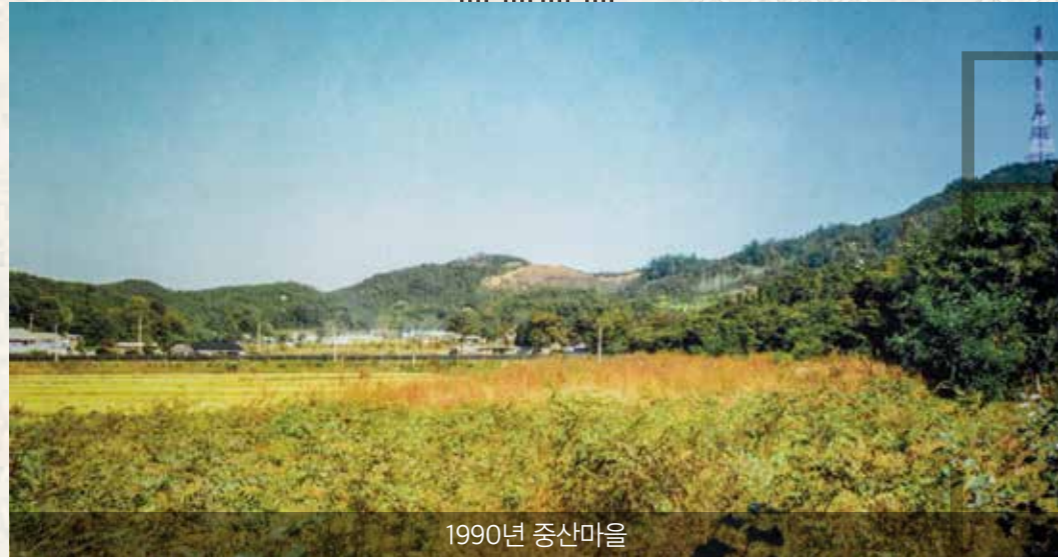


나의 살던 고향은

고곳의 옛모습을 기억하시나요



1990년 중산마을



현재 중산동



1990년 문촌마을



현재 주업동

고봉산 정상이 보이던 중산마을

1990년 중산 신도시 개발 이전의 모습이다. 오른쪽으로 고봉산 정상이 보이고 고봉산과 황룡산 사이에 중산마을의 옛 모습이 보인다. 마을은 중산마을, 골짜기 이름은 안악골이라 불렀다. 중산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남쪽을 제외하고 세 방향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현재는, 1990년대 초반 중산택지개발 사업으로 아파트와 상가, 공원과 도로 등이 들어섰다.

한없이 펼쳐진 벌판이 있던 문촌마을

주업동 문촌마을의 1990년 일산 신도시 개발 이전의 모습이다. 마을에 오래전부터 다섯 마리의 말이 살았다고 하여 오마리(五馬里)라 불렀다. 마을 뒤로 작은 새말동산이 있었고, 앞쪽으로는 민마루 벌판과 오마리 벌판이 펼쳐져 있었다. 기름진 평야에 마을이 있어 일산쌀로 유명한 곡창지대로 알려진 마을이다. 지금은 아파트와 학교, 도로와 공원 등으로 바뀌었다. 옛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나 오마중학교 등의 학교명 등으로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글·사진 정동일(현 고양시청 역사문화재 전문위원/1991년 당시 고양문화원 연구위원)